

호스피스와 인간의 존엄성

손 봉 호*

머리말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고통을 견디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호스피스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다. 생물학적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호스피스 본연의 사명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호스피스는 사람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속시켜야 할 임무를 맡은 병원과 다르다. 물론 병원도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하고, 호스피스도 가능한 한 환자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가 기대하는 임무의 핵은 서로 다르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병원이 존중해야 할 이념은 생명의 존엄성인 반면 호스피스의 일차적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생명이 없는 인간을 상상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의 존엄성을 함축하고 있지만, 호스피스의 주 관심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란 점에서 그 강조점이 다르다. 호스피스에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병원과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다.

1. 왜 인간은 존엄한가

대부분의 종교교리나 철학사상은 인간을 만물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가르친다. 옛날 우리나라 서당교육에 사용된 기본 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동문선습(童文選習)은 “만물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귀하니”(萬物之中에 唯人이 最貴하니)로 시작하고, 철학자 칸트의 정언명령(定言命命) 두 번째 형식은 “당신 자신이나 어느 다른 인격체의 인간성을 결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모든 경우에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행동하라”이다. 인간은 결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물론자 마르크스도 자신의 사상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Humanismus)임을 강조하고, 공산주의는 곧 인본주의라고 주장하였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통치하도록 되어 있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아무도 사람의 피를 흘릴 권리가 없음을 가르친다.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1948년에 제정, 발표된 보편인권선언,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모두 인간의 기본인권과 존엄성을 그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존엄한가? 오늘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념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 이념을 정당화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역시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다는 생각이 아닌가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 서울대 사범대 교수

우주가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운행되고,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주어졌다고 믿었는데 그것을 이성이라 불렀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공통점이 많으나, 다만 인간만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을 가진 동물’(animal rationale)이라 정의하였다. 그런 생각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합쳐져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이란 표현이 그런 배경을 반영한다. 중국의 고대사상이나 문예부흥기에는 인간이 소우주(microcosm)란 관념이 발견되는데, 역시 비슷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온 우주를 반영하는데, 그 우주란 사실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최근 종교들이 세속화되고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이 약화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인권을 정당화하는 전통적 근거가 힘을 잃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도, 우주의 법칙도, 이성이란 능력도 비판과 회의의 대상이 되고, 인간에게만 있는 정신작용도 모두 신경세포의 작용에 불과하다는 유물론적 사고가 일반화됨으로, 왜 인간만이 존엄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최근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를 주장하는 풍조가 일어나는데 인권의 확장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권을 오히려 상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불분명하므로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적 현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정당화한다.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추구하지만 인간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기 원한다. 동물가운데도 개 같은 짐승은 사람들의 관심을 요구하지만,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대우를 받기를 의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무시당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염원은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고, 스미스(Adam Smith)는 이 염원을 기초로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모든 인간이 가진 이 주관적인 염원에다 동서고금에 황금률로 인정받고 있는 보편화가능성의 원칙(principle of universalizability) 혹은 상호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적용하면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무시당하기 싫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고 명령하고, 논어(論語)는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고 가르친다. 이런 설명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존엄하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자신도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존엄성이란 관념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런 공리주의적 정당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게 교육하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왜 인간은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염원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모든 동물의 생존본능이 심리적인 것으로 승화한 것이라 설명할 지 모르지만, 명예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현상은 존엄성에 대한 욕구를 생명보존 본능의 승화로 설명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존엄하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는 가치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존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 본래적인 존엄성을 부인하는 유물론적 인간관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일상 생활의 실천과 일치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정당화 될 수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당착의 결과를 가져온다. 즉 존엄성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결과적으로 존엄성의 가치를 상대화시켜 실제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실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다. 생물학적 생존과 종족보존 본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기쁨, 의지, 사랑, 미움, 고뇌, 양심의 가책, 희생, 사명감, 자유와 자발성(spontaneity), 의무, 책임감, 존경, 멸시 등 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결정한다. 존엄성은 인간에게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존엄성이 결여된 인간은 우리가 알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아니다. 인간이란 사실 자체가 존엄성을 포함하고 있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는 A란 명제와 같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인 직관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죽음과 고통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한계는 죽음과 고통이다. 사실 죽음과 고통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이란 현상이 '심각하다'는 말의 의미를 결정한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種)으로서의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인간의 인간다움은 개체의 실존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인과 무관한 인간의 생존과 보편적인 존엄성은 무의미하다. 개인에게만 죽음은 절망적이고 고통은 실제적이고 심각하다.

물론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념, 신념, 신앙, 조국,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경우를 보면 사람에게 의미는 생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철학자 니체는 "확실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인간은 고통을 그 자체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 고통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즉 고통의 목적이 드러난다면, 그는 고통을 바라고 심지어는 추구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의미가 있는 죽음과 고통이라면 스스로 택할 수 있고, 그런 고통과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존엄성을 더 강화한다 할 수 있다. 인간만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고, 거기에 다른 동물에서 발견될 수 없는 인간의 고상함과 존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죽음과 고통이 자발적으로 '택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고통과 죽음은 하는 수 없이 '당하는 것'이고, 바로 이 사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대부분의 고통(passion, Leiden)은 수동적이다. 자유와 자율성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기본 요소며 인간의 존엄성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죽음은 이에 어긋난다. 실제로 모든 인간이 고통을 받거나 고통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한계를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존엄성에 비하면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존엄성에서 파생하고, 그것에 의존한다.

인류의 문화와 역사는 고통과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과정이며 그 열매라 할 수 있다. 만약 인간에게 고통이나 죽음이 없었다면, 일년 4시 꽃이 만발한 곳에 벌들이 꿀을 저장하지 않듯 인간은 아무 것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하오징하(J. Huizinga)는 문화가 놀이의 산물이라 하지만, 필요가 전제되지 않는 유희적 창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고통과 죽음이 없어도 음악, 미술, 축구 경기는 가능했는지 모르나, 자동차, 병원, 냉방기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의 문화는 고통과 죽음이란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일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위협받는 삶의 의미를 보호하고 창조하는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경험하고 의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호스피스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가장 분명하고 절실하게 의식한다. 그런 점에서 호스피스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운명을 전형적으로 대변하며 그 존엄성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다. 건강하게 활동하는 일반인이나 그들을 직접 돌보는 봉사자들에 비하면 그들의 존엄성은 훨씬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은 여러 분야와 경우에서 침해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의하여 가장 처참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 아픔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호스피스 사역은 인간 존엄성을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것은 작은 고통을 많이 줄여주는 것보다 효용성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사흘을 굶은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배가 조금 곱은 사람에게 진수성찬보다 그 가치가 더 큰 것과 같다.

3. 인간이 주는 고통

과거에는 인류가 주로 천재지변으로 고통 당했고 생존이 위협받았다.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홍수와 가뭄은 댐을 막으므로, 기근은 농업기술로, 질병은 의료와 제약기술로 해결하였다. 그래서 현대인은

태풍, 지진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자연재해 대신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생산한 힘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 범죄, 착취, 독재, 국가를 비롯한 집단들의 이기주의 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차별대우, 질투, 따돌림, 비난, 조롱, 배제 등의 사회적 소외가 사람을 괴롭히며, 교통사고, 환경오염, 인구성장과 경제확장에 의한 사막화 등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생명을 위협한다. 심지어 생물학적 현상인 암조차도 사람이 일으킨 환경오염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많고, 장애의 90% 이상이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생겨난다 한다. 루이스(C. S. Lewis)는 오늘날 인류가 당하는 고통의 4/5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가해진다고 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그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생물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로 이미 인간으로서 그들의 존엄성이 상당할 정도로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질병이 상당부분 사회적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들로 병들게 한 원인에서 이미 그들의 존엄성이 침해받았지만,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엄성이 침해받을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현대에서처럼 사람이 기능에 따라 평가되고, 육체적 쾌락이 삶의 핵심적 가치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생산할 수 없고 아무 것도 즐길 수 없게 병들었다는 사실은 그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즉 무용지물이 되어 사회에 보탬이 아니라 짐이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전 교장이었던 맥카이(John A. Mackay), 네델란드 선교신학자 후켄데이크(Johannes Christiaan Hoekendijk), 헝가리 출신 소설가 퀘스틀러(Arthur Koestler)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사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늙고 병들었을 때 자살하였다 한다. 우리가 동조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지만 기능론적인 인간관이 잘 반영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풍조는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쳐, 늙고 병든 가족에 대한 다른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이 옛날

과 달라지고 있다. 말기환자는 정성껏 돌보아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이 지연되면 귀찮고 역겨운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특히 가난한 가정, 공간이 넓지 않은 가정의 말기환자는 다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보살피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거추장스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철저히 무력해진 상태에서 가족의 역겨운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서러움 가운데 가장 큰 서러움이며, 육체적 고통에다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기는 매우 어렵고, 가족까지 천대하는 데도 환자가 자존감을 가지고 인간의 위신을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존심과 위신은 다른 사람이 존중할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학의 발달은 질병이 일으키는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연장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였다. 그것은 동시에 사람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시켜 주고 죽음의 공포를 덜어 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도 공헌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의료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치유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식물 인간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된다 할 수 없다.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의료윤리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의 존중과 인격의 존엄성 존중이 서로 충돌하는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와 자율을 전제로 하는데 개인에게 자유와 자율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물학적 생존이 존엄하다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말년에 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진통제 사용을 거부했다 한다. 몽롱한 정신으로 살기보다는 고통을 참으면서도 명료한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다.

물론 일생동안 특정한 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어떤 기구에 의지하여 생존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약품이나 보조기구는 그들이 다른 많은 영역에서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런 약품이나 기구에 전적으로 매달

리는 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린다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 호스피스와 인간의 존엄성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그의 가족, 그리고 인간 공동체를 정서적, 영적, 물질적으로 보살핌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가지고 죽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역시 보살핌의 주된 대상은 말기환자이며, 보살핌의 주된 목적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정서적, 영적으로 그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말기환자를 제대로 보살폈을 때 그 가족과 공동체도 치유될 수 있으며, 말기환자가 고통과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의젓하게 위엄을 유지하며 고통을 견디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곧 그와 그 가족의 삶의 질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이긴 자”란 속담이 있다. 물론 평생동안 못된 짓만 하던 사람이 죽을 때만 행복하다 하여 그의 삶이 멋지다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어떤 개인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도 그가 마지막으로 고통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 죽는다면, 그는 승리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호스피스는 인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봉사라 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마지막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다.

호스피스가 결코 대형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자가 많고 기구가 복잡해지면 보살핌이 기계적이 되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정서적, 영적, 신체적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 하나의 숫자가 되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호스피스에 갈 이유가 없다. 단순히 가난한 가정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호스피스는 무관심과 천대 속에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소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호스피스는 소규모로 운영되어야 하며, 수요가 많으면 호스피스를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늘여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려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노예가 되어 의식이 마비되고 모든 결정의 자유를 다 상실함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만약 프로이트처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면 진통제를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보살핌이 될 것이다.

병이 심각하여 호스피스에서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자존심과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가족은 그래도 병든 가족을 돌볼 의무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빛을 진다는 느낌이 적을 수 있지만,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그 자신의 병든 몸과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산소호흡기에 생존을 의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인격체에 맡기는 것이므로 자존심에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호스피스의 보살핌이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끝까지 혼자서 병마와 싸우는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용기 혹은 인내력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특권이 아니다. 대부분의 말기환자는 마지막 시간을 자기 이외의 다른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심리적 안정과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는 호스피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맞는 이상적인 방법은 아닐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봉사자의 태도에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즉 환자에게 가능한 한 시혜의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 그런 봉사를 받는 것이 환자의 권리란 인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봉사자들,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봉사자들도 인간이므로 환자들이 자신들의 봉사를 알아주고 감사해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자존감은 그만큼 줄어들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호스피스 본연의 임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랑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자로 느끼도록 만드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맞는 말

모든 복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복지는 기능론적으로 생산적이다. 고아들을 잘 키우면 사회에 생산적인 힘이 될 수 있고, 장애인 재활이 잘 이루어지면 사회의 짐이 그만큼 줄어들는다. 그러나 호스피스 복지활동은 전혀 비생산적이다. 전혀 생산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기환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며,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봉사는 모든 복지활동 가운데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장 순수한 활동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가장 고상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사실이 호스피스 봉사에 의식되어야 하며, 그에 걸 맞는 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계적이거나 시혜적인 봉사,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 운영은 호스피스 정신에 근본적으로 역행할 것이다.